

## 宋代 傳奇小說에 나타난 妓女의 從良 양상

김 주 영\*

##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從良 달성 요건 |
| II. 작품 속 기녀들의 從良 유형 | 1. 문학적 재능     |
| 1. 脫籍과 자유연애         | 2. 경제적 능력     |
| 2. 從良의 실패와 복수       | 3. 婦德의 검비     |
| 3. 정혼자로 인한 從良 성공    | IV. 나가며       |

## I. 들어가며

중국 소설에서 기녀와 문인과의 애정을 다룬 작품은 상당수 있다. 기녀들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남성과의 행복한 결합을 위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만 태생부터 이미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으로 인해 그들의 결합과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하지만 애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그 욕구가 여러 난관에 의해 좌절당하고 표출되기 어려울 때 그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기에 신분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녀의 사랑이야기는 줄곧 소설 소재로 각광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宋代에 들어와서도 기녀와 문인간의 애정소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에서 남녀의 행복한 결말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남자 주인공인 아닌 천민인 기녀이다. 소설 속 기녀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이 바라는 애정의 최종 목표는 혼인으로서 이를 통해 한 남성만을 향한 性的 종속을 이루고 싶어 했다. 그렇기에 기녀들은 妓籍에서 벗어나거나 良人에게 시집가는 것인 「종량(從良)」<sup>1)</sup>을 간절히 바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본래 양가집 규수였으나 몰락하여 기녀가 된 경우에는 스스로의 신분에 더욱 불만을 느껴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민 출신의 기녀와 문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宋代 傳奇 小說을 선정하여 신분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기녀들이 보여준 다양한 양상을 유형화시키고 인고의 궤적 속에서 드러난 그녀들의 구체적인 능력을 살펴 어떤 조건들이 성공적 결말을 이끄는지 고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sup>2)</sup>

宋代 傳奇小說에 대한 연구는 唐代 傳奇小說은 말할 것도 없이 宋代 소설사의 중심이 된 話本小說 연구에게도 밀려 줄곧 등한시 되어왔다. 그렇기에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宋代 傳奇小說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속의 宋代 기녀의 삶을 이해함은 물론 宋代 傳奇小說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작품 속 기녀들의 從良 유형

송나라의 창기 제도는 당나라 제도에 기인하였지만<sup>3)</sup> 상업경제가 발달함

- 1) 권호중·박정숙, <<靑樓韻語>>를 통해 본 妓女の 接客心理 考察, 《중국어문학논집》 제93호, 2015, 292쪽.
- 2) 樊小青은 李劍國의 《宋代傳奇集》에서 주인공이 기녀인 작품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총 8편의 良民 출신 기녀의 사랑이야기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蘇小卿>은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王生>, <李師師外傳>, <董漢州孫女>는 從良에 대한 주인공들의 태도 및 행위가 묘사되어 있지 않아 본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單符郎>, <甘棠遺事>, <譚意歌記>, <王魁傳>의 4편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樊小青, 《宋代靑樓題材小說研究》, 陝西理工學院碩士學位論文, 2014.

에 따라 대중문화가 흥성하여 기녀들의 수가 唐代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妓院도 각지에서 흥성했다.<sup>4)</sup> 당시 東京의 인구는 100만을 넘었고 수많은 妓館, 娼樓 뿐만 아니라 燕館歌樓 등 그 수가 만 곳에 달했다.<sup>5)</sup>

《東京夢華錄》에서는 성 내외의 19군데서 妓樓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卷2 〈宣德樓前省府宮宇〉에서 “서쪽으로 가면 전부 기녀의 관사로서 사람들이 모두 「院街」라고 불렀다”<sup>6)</sup>라고 하고, 〈酒樓〉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경의 술집 문 앞에는 모두 색견으로 장식한 구조물인 환문이 있었다. …… 밤이 되면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아래위를 비추고, 화려하게 화장한 기녀 수백 명이 주랑의 기둥 앞에 모여 술꾼들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신선이 된 듯 하였다.”<sup>7)</sup>라고 하여 당시 수량과 규모면에서 宋代의 娼妓 사업은 상당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 들어 더욱 번창해진 도시와 시민 계층의 형성으로 인해 妓院들은 많은 기녀들을 필요로 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의 기녀들이 더욱 생겨났다. 죄인의 친족이 기녀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녀의 대부분은 매매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sup>8)</sup> 北宋 시기에 杭州에서는 良家の 딸을 사들여 창기로 삼았고 南宋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더욱 번창하여 기녀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娼儉라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sup>9)</sup>

본 논문에서 선정한 〈單符郎〉, 〈甘棠遺事〉, 〈譚意歌記〉, 〈王魁傳〉의 여

3) 왕서노(신현규 편역), 《중국창기사》, 어문학사, 2012, 236쪽.

4)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제53집, 2009, 108쪽.

5) 권응상,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중국 고대 기녀: 당·송·원 기녀의 문학 예술적 역할에 관하여》, 소명출판, 2014, 120쪽.

6) 〈宣德樓前省府宮宇〉: 向西去皆妓館舍, 都人謂之「院街」。맹원로(김민호 역), 《동경몽화록》, 소명출판, 2010, 88쪽.

7) 〈酒樓〉: 凡京師酒店, 門首皆縛彩樓歡門, ……向晚, 燈燭熒煌, 上下相照, 濃妝妓女數百, 聚於主廊楹面上, 以待酒客呼喚, 望之宛若神仙。맹원로(김민호 역), 같은 책, 110쪽.

8) 왕서노(신현규 편역), 앞의 책, 241쪽.

9) 왕서노(신현규 편역), 앞의 책, 241쪽.

주인공들은 원래 양가집 출신이었지만 부모의 죽음, 전란 등을 거쳐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매매되듯이 기녀로 전락하였다. 그 후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妓籍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삼엄한 규제 속에서 자유와 인격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다. 노비처럼 매매나 증여가 되는 것은 양민 출신인 기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교양과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더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이들은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를 더욱 동경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녀가 妓籍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良人에게 시집을 가서 정상적인 가정까지 갖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그녀들의 從良에 대한 바람은 간절하다. 唐代 徐月英의 〈叙懷〉시를 살펴보면 기녀들의 從良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다.

爲失三從泣淚頻,	삼종을 하지 못해 눈물 자주 흘리니
此身何用處人倫。	이 몸 무엇으로 사람무리에서 거하리오.
雖然日逐笙歌樂,	비록 그렇다고 해도 날마다 음악소리 좇으며
常羨荆釵與布裙。	항상 소박한 부녀자 생활하길 흠모한다네. <sup>10)</sup>

기녀들은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소박하게나마 良人에게 시집가는 평범한 삶을 소망하였다. 唐代 기녀인 서월영처럼 이들 4편의 여자주인공 역시 妓籍에서 벗어나 자유의 신분이 되어 최종 목표인 良人과의 사랑을 쟁취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고 염원하였다. 4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妓女들의 從良 행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脫籍한 뒤 자유연애를 통해 良人에게 시집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從良을 원하지만 남자의 배신으로 실패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녀가 되기 전의 인연으로 從良 하는 것이다.

10) 권호중·박정숙, 앞의 논문, 293쪽.

## 1. 脫籍과 자유연애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으로 妓籍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형과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譚意歌記>의 譚意歌와 <甘棠遺事>의 溫琬이 있다. 그녀들은 비록 妓籍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었으나 從良하여 안정된 가정에 정착하고자 간절히 소망하였고 脫籍한 후에도 시련을 겪지만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譚意歌記>로 여주인공인 譚意歌는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닥치면 당당하게 이를 헤쳐나가고 주체적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譚意歌는 원래 양가집 출신이었지만 부모가 돌아가 張文이라는 사람에게 길러졌다. 후에 官妓인 丁婉卿이 그녀가 맘에 들어 養父를 꼬드기고 결국 張文은 돈을 받고 譚意歌를 기녀로 만든다. 譚意歌는 張文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가난한 집이라도 시집가겠다며 기녀로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譚意歌는 丁婉卿의 집으로 오면서 큰 소리로 울며 “나 홀로 외로이 만 리 밖 먼 곳으로 떠도네.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아무도 가없이 여겨 도와주지 않으니 양인에게 시집갈 수 없구나.”(我孤苦一身, 流落萬里, 勢力微弱, 年齡幼小, 無人憐救, 不得從良人)라고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없음을 비탄해 했다. 이처럼 譚意歌는 어쩔 수 없이 기녀로 전락했지만, 혼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譚意歌는 음율과 작시에 능하여 명성이 높았는데 마침 長沙에 부임한 劉宰相이 그녀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자 이에 脫籍을 청하여 妓籍에서 벗어난다. 이렇듯 譚意歌는 從良에 대한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여 새로운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주동적으로 배필을 찾고 차 전매 관리인 張正宇를 보고는 자신의 배필로 점찍어 적극적으로 다가가 과감하게 애정을 쏟는다. 이 둘의 사랑은 불같이 타올랐지만 張正宇가 다른 곳으로 전근 가게 되면서 헤어지고 부모의 권유로 張正宇는 孫氏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녀는 그와 헤어진 후 처음에는 張正宇가 자신에게 돌아와 줄 것을 원했지만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혼자

서 아들을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이며 깨끗하게 생활해 간다. 그리고 孫氏가 죽은 후 張正宇가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자 정식으로 결혼을 청하여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나약한 기녀의 모습이 아닌 주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甘棠遺事〉의 주인공 溫琬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녀는 良民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기녀로 전락하여 鳳翔에 있는 이모부 郭祥의 집에 기거하게 된다. 그녀는 온화한 성정을 지니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다. 이모부가 그녀의 비범한 재주를 보고 여성으로서 다른 뜻을 품을까봐 걱정할 정도로 그녀의 학문적 성취와 문학적 소양은 남달랐다. 그녀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모는 張씨 아들과 혼담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官妓인 생모가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나 溫琬이 생모를 따라가지 않으려 하자 생모는 관부에 고해 혼약을 취소시키고 억지로 딸을 妓籍에 오르게 한다. 기녀가 된 溫琬은 그 후로도 독서를 즐겼고 태수인 張靖의 권유로 作詩를 배워 문인사대부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녀는 특히 맹자에 정통하였는데 당시 재상 司馬光과 맹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장태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된 그녀는 장태수에게 脫籍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다. 하지만 늘 혼인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소망하던 溫琬은 태수가 임기가 끝날 때 쯤 그의 허락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 그 후 太原의 왕생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장래를 약속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죽고 만다.

溫琬은 譚意歌와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정식 혼례를 올리지 못하는 못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妓籍에서 벗어난 뒤 자유의 신분이 되어 애정을 추구하였으며 왕생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왕생이 죽은 후로도 절조를 지키며 생활하였기에 이 또한 從良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 2. 從良의 실패와 복수

두 번째 부류는 사랑의 쟁취와 더불어 신분 상승까지 도모하나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자신의 염원인 從良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王魁傳>의 王桂英은 王魁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전형적 인물이다. 桂英은 자신을 소개하며 “첩의 성은 왕씨인데, 원래 대대손손 良家 집안 출신이었습니다.”(妾姓王, 世本良家)라고 하였다.<sup>11)</sup> 어떤 이유로 기녀가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그녀 또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기녀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녀는 王魁를 첫눈에 알아보고는 從良의 의지를 불태운다. 王魁는 秋試에서 避諱를 하지 않아 낙방하였지만 명성이 높았던 자이다. 그렇기에 그를 알아본 桂英은 힘들고 고단한 기녀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세 가능성이 높은 王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그를 처음으로 본 자리에서 桂英은 王魁에게 시 한 수를 청해 그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후 그녀는 술자리를 마치고 무리 중 王魁만을 남게 해 그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王魁에게 과거 준비에 전념을 하도록 한다. 王魁는 그녀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다시 과거에 도전하게 되고 헤어지기 전 자신이 변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하지만 桂英은 일전에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예고하는 꿈을 꾸어 王魁에게 海神廟에 가서 신령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하자고 한다.

혼인제도로 볼 때 사대부가의 자제와 기녀의 만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혼인이 전제가 된 만남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앞날에 대한 불안한 심경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는 신 앞에서의 사랑의 서약을 요구한 것이다. 王魁는 “저와 桂英은 서로 사랑하기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이별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신께서 마땅히 벌을 주십시오. 만약 신

11) 李劍國, 《宋代傳奇集》, 中華書局, 2001, 160쪽.

께서 벌하지 않으신다면 신령이 아니라 우매한 신일 따름입니다.”(某與桂英情好相得，誓不相負。若生離異，神當殛之。神若不誅，非靈神也，乃愚鬼耳)<sup>12)</sup>라며 배신을 하면 천벌을 받으리라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王魁는 장원급제를 하자 이내 마음을 바꾼다.

王魁는 혼자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내가 과거에서 등수가 이와 같으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를 것이 분명한데, 지금 이렇게 일개 娼妓에게 사로잡혀 있다니. 게다가 집에는 엄한 아버님이 계시니 분명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마침내 그는 맹세를 저버리고, ‘省試’와 ‘御試’를 통과한 후에는 곧바로 편지를 끊어 버렸다. 桂英은 王魁가 장원급제했다는 것을 알아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 (魁乃私念曰：“吾科名若此，即登顯要，今被一娼玷辱，況家有嚴君，必不能容。”遂背其盟。自過省御試後，即絕書報，桂探聞魁擢第爲龍首，大喜。)<sup>13)</sup>

변심한 王魁와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던 桂英은 몇 번이고 서신과 시를 주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桂英은 세 번째로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을 가지고 간 奴僕이 맞고 오는 것을 보고는 분노가 극에 다다른다. 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복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결로 신령을 감응시켜 복수를 하고 王魁는 桂英의 귀신을 보고는 자결하여 배신의 대가를 처참하게 치르게 된다.

남성이 과거에 급제하여 신분 이동을 하였다면 기녀 신분의 여성은 관리와의 결혼을 통해 良民의 신분이 되어 신분 이동이 가능했다. 溫琬과 譚意歌가 자신의 妓籍을 풀어 줄 수 있는 관리를 설득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桂英은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良人과의 정식 혼인을 통해 妓籍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을 획득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정식 혼인으로 良人이 되기 전에 이미 그녀는 남성의 立身揚名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기녀인 桂英은 자신의 비극적 사랑에 대해 무척 공격적

12) 李劍國, 앞의 책, 160쪽.

13) 李劍國, 앞의 책, 161쪽.

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생부터 비극적인 애정이야기를 더욱 과극적으로 몰고 갔다. 王魁의 배신에 대해 격렬한 방법으로 갈등을 키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복수를 다짐하는 여주인공의 행위는 당시 사회 지배질서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이로 인해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거부당하고 그들에게 용인되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배신에 대한 응징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피지배계층인 일반 민중의 보편적 심리에 영합하여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 3. 정혼자로 인한 從良 성공

〈單符郎〉이 이 부류의 이야기로 〈單符郎〉의 여주인공인 邢春娘은 京師에 사는 單符郎과 어려서 혼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戰亂으로 인해 娼妓로 金州에 팔려가고 金州에 관리로 오게 된 정혼자 單符郎과 우연히 만나면서 그의 도움으로 從良하게 된다.

邢春娘 역시 從良에 대한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평범한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정혼자인 單符郎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전란으로 가족을 잃고 기녀로 전락한 邢春娘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당신은 매일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금의 관리들이 모두 존중해주고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뭐가 나쁜가요?”(汝卽日鮮衣美食, 時官皆愛重, 而不肯輕賤, 有何不可?)<sup>14</sup>라고 말하자 邢春娘은 “저는 여자는 태어나면 시집을 가서 가정을 얻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평민에게 시집갈 수 있다면 베치마를 입고 짧은 이불을 덮으며 콩죽 먹고 물 마시며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도 양민의 부인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옛 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을 환영하고 있으니 어떤 감정이겠습니까!”(妾聞‘女子生而願為之有家’, 若卽嫁一小民, 布裙短衾, 啜菽飲水, 亦

14) 李劍國, 앞의 책, 574쪽.

是人家媳婦。今在此迎新送故，是何情緒!)<sup>15)</sup>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이에 單符郎은 邢春娘의 진심을 알고는 그녀를 從良시킬려고 애를 쓰고 우여곡절 끝에 태수의 허락을 받아 그녀를 脫籍시킨다.

하지만 邢春娘은 이토록 절실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譚意歌나 溫琬처럼 신분 회복을 위해 자신을 脫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주동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마음에 둔 남성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單符郎>의 여주인공 邢春娘은 앞의 기녀들보다는 다소 수동적인 행동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앞에서 살펴 볼 수 있었던 기녀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 Ⅲ. 從良 달성 요건

앞에서는 4명의 기녀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녀들의 從良 추구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 기녀들은 평범한 여성으로 정상적인 혼인을 통해 가정을 가질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邢春娘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그 염원을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3명인 譚意歌, 溫琬, 桂英은 從良 추구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從良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결말은 각기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소망인 從良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결말을 초래한 것일까? 이에 위 기녀들이 從良 추구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능력과 주동적인 면모를 분석하여 從良을 이루게 된 요건과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15) 李劍國, 앞의 책, 574쪽.

## 1. 문학적 재능

宋代 傳奇는 唐代 傳奇와는 다르게 기녀들의 재능을 부각시키고 특히 그녀들의 문학적 성취를 높게 평가하면서 「才女」로서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詩詞는 문학적 소양과 감수성 없이는 쉽게 지을 수 없다. 기녀가 문인들과 和韻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배층 남성들의 학문적, 문화적인 교양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능력은 아니다. 그렇기에 기녀의 뛰어난 문학적 소양은 주고객인 문인들의 감성을 깨우고 그들을 매료시켜 자신의 존재를 알려 여러 곤란한 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譚意歌는 특히 남다른 시적 감각으로 순발력 있게 시 대구를 잘 지어 사대부 문인들을 기쁘게 하였다. 당시 長沙의 태수 직무를 맡고 있던 轉運使가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멋진 수염을 가진 醫博士가 오는 것을 보고 轉運使는 “의사가 인사할 때 수염이 땅을 쓸고 있네.”(醫士拜時須拂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곁에 있던 譚意歌는 “태수가 머무는 곳의 장막은 하늘에 닿을 듯하네.”(郡侯宴處幕侵天)라고 받아친다. 이외에도 蔣田이라는 사람이 譚意歌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녀를 조롱하며 “동이는 서리 맞은 후에도 자주 분칠을 하네.”(冬瓜霜後頻添粉)라 하자 譚意歌는 “대추는 가을이 와도 붉은 색의 관복을 입네.”(木棗秋來也著緋)라고 대구를 지어 蔣田 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던 문인들의 찬탄을 자아내었다. 그 외에도 魏씨 성의 諫議大夫와 함께 岳麓山에 유람할 때에는 그의 마음에 드는 대구를 지어주어 魏大夫가 그녀에게 「文婉」이라는 이름과 「才姬」라는 자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官妓 譚意歌는 여러 관료문인들에게 그녀의 재주를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다.

이처럼 譚意歌는 기녀의 신분에 걸맞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연회에 속성에 맞추어 시의 소비자인 지배계층의 미의식을 잘 반영하여 술자리의 흥취를 고조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문자유희식의 즉흥적이고 기발한 시로 좌중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지하게 遊仙詩를

지으며 찬탄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연회에 나가 자신의 문학적 재주를 파는 천한 기녀의 신분은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長沙의 관리로 오게 된 劉宰相을 만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된다. 譚意歌는 그와 함께 岳麓山을 구경하면서 그에게 시를 지어 바친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眞仙去後已千載，此構危亭四望賒。靈跡幾迷三島路，憑高空想五雲車。  
清猿嘯月千巖曉，古木吟風一徑斜。鶴駕何時還古里？江城應少舊人家。(신선이 떠난 후 이미 천년이 지나고, 이 높은 정자는 사방에서 바라보니 멀기만 하구나. 신령한 흔적에 봉래 삼도<sup>16)</sup> 찾는 길 거의 잃어버리고, 높은 곳에 기대어 공연히 신선이 타는 오운거를 생각한다. 처량한 원숭이 울음 소리 많은 골짜기에 새벽까지 울려 퍼지고, 구비 구비 오솔길에 오래된 나무는 바람 소리 내네. 학을 타고 올라간 신선은 언제쯤 옛 고을에 돌아올까? 강성은 응당 오래된 인가가 드물리라.)

유재상은 이 시를 보고는 「詩妖」라는 칭호로 재주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내력을 물었다. 이에 그녀는 “저는 기적에 올라 부림을 당하며 손님을 접대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나 감히 노고를 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운이 좋아 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께서 도와주셔서 기녀의 호적에서 벗어나 양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죽어서도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意入籍驅使迎候之列有年矣，不敢告勞。今幸遇公，倘得脫籍，爲良人箕帚之役，雖死必謝)라며 청을 하고 유재상은 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그녀의 재주를 인정해 그녀의 소원대로 脫籍시켜 준다. 결국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良人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녀의 詩作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甘棠遺事〉의 溫琬 역시 그녀의 학문과 문학 소양으로 良人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관기인 어머니를 따라 마지못해 기녀가 된 그녀는 기녀들의

16) 전설의 蓬萊, 方丈, 瀛洲의 바다 선경을 말한다.

치장에만 신경 쓰고 교양 없는 언행을 혐오하며, 오직 독서에만 관심을 두었다. 기녀가 되기 전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좋아하던 그녀는 기녀가 된 후로도 다방면의 책들을 읽어 박학다식하였으며 특히 맹자에 대해 정통하였다. 張太守가 맹자에 나오는 어느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을 듣고 즉석에서 그 말이 나오는 판본과 장절까지 지적해내었을 정도였는데 이에 “계수나무 가지를 만약 가인이 꺾게 허락한다면 마땅히 감상의 여자가 장원이 될 것이다.”(桂枝若許佳人折, 應作甘棠女壯元)라며 그녀가 남자라면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이라고 칭송했다. 장태수는 作詩를 배우라고 권했는데 그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시로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이후에 태수는 연회를 할 때마다 항상 溫琬에게 시중들도록 하면서 즉석에서 시를 짓도록 명하였다. 특히 溫琬이 재상 사마광 앞에서 맹자에 대한 해박함을 드러내자 태수는 그녀의 재주를 더욱 아껴 妓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을 묵살했다. 그녀가 태수의 명으로 지은 시인 〈香篆〉을 살펴보도록 하자.

一縷祥煙綺席浮,	한 줄기 상스러운 안개는 비단 깔개 위에 떠 있고,
瑞香濃膩繞賢侯。	상스러운 향기 농염한데 현후를 에워싸고 있네.
還同薄命增惆悵,	또한 박명한데다 슬픔까지 더해지고,
萬轉千回不自由。	이리저리 계속 돌며 자유롭게 가지 못하네. <sup>17)</sup>

이 시는 태수가 脫籍을 요청하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香篆으로 시를 짓도록 명하자 지은 것이다. 溫琬은 이 시에서 금방 타 없어질 향의 「薄命」과 향을 피울 때 피어나는 연기가 자유롭게 퍼지지 않고 현후 주위만 맴도는 모습에 태수의 부름에 응해야만 하는 자신의 박복한 신세와 자유가 박탈된 처지를 빗대고 있다. 태수는 이 시의 의미를 알아차렸겠지만 임기가 끝나 이임할 즈음에 그녀를 자유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었다. 妓籍에서 벗어난 후 溫琬은 모친과 함께 京師로 갔으며 그곳에서 자유연

17) 李劍國, 앞의 책, 204쪽.

애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꿈꾸었다.

〈王魁傳〉의 桂英 역시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기녀였다. 桂英은 王魁와 헤어져 있는 동안 서신과 詩詞를 통해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였고 자신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와의 행복한 결말을 요구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자신의 심리 변화와 감정을 詩詞에 담아 섬세하고 곡진 있게 표현하면서 王魁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자신과의 사랑을 쉽게 저버리지 않게 한 것이다. 王魁가 장원급제 후 배신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桂英이 연속적으로 보낸 세 편의 詩가 바로 그것으로 그녀는 이를 통해 王魁의 장원을 기뻐하는 감정과 그동안 답신을 하지 않은 서운함을 전하였다. 그에게 전달한 마지막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國笙歌錦繡鄉，	京師는 풍악 소리 울리는 비단처럼 화려한 도시
仙郎得意正疏狂。	그대는 뜻을 이루시더니 이제 거리낌이 없겠네요.
誰知樵悴幽閨客，	규방의 여인이 초췌해지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요?
日覺春衣帶繫長。	날마다 야위어 봄 옷 허리끈이 자꾸만 길어지네요. <sup>18)</sup>

이 시는 桂英의 감정을 응축시켜 그들의 사랑과 맹세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자아내어 王魁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詩를 받아 본 王魁는 괴로워 흐느껴 울며 남몰래 슬픔을 참았다. 하지만 이미 부모님이 최씨 집안의 여식과 혼약을 한 터라 거역할 수는 없었다. 비록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그녀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는 그녀의 시를 전달받고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이와 같이 그녀의 문학적 능력은 그녀의 염원인 從良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王魁의 욕망은 그녀의 이런 능력의 발휘로는 채워지지 않았기에 桂英은 결국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고 자결하게 된다.

18) 李劍國, 같은 책, 162쪽.

## 2. 경제적 능력

〈譚意歌記〉와 〈王魁傳〉에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여인들이 남자주인공을 몰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장면이 있다. 특히 桂英은 王魁의 詩才나 출세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자신의 애정과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譚意歌 역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녀는 이미 良人 신분이요 남자 주인공인 張正宇는 관직이 있는 상황이라 오로지 기녀인 桂英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했던 王魁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王魁傳〉의 桂英이 王魁와 인연을 맺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萊州의 선비 하나가 평소 王魁의 명성을 듣고 그와 교유하며 지냈다. 하루는 서너 명의 친구들을 불러 도시 북쪽의 깊은 골짜기까지 갔는데 작은 집이 하나 있어 문을 두드렸다. 어떤 여인 한 명이 나오는데 나이는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고 자태는 매우 아름다웠다.(萊之士人, 素聞魁名, 日與之遊。一日, 爲三友招, 過北市深巷, 有小宅, 遂叩扉。有一婦人出, 年可二十餘, 姿色絕艷。)19)

위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 桂英은 미모를 갖춘 여성이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詩才와 문학적 소양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20세가 넘는 桂英으로는 새로운 인생 설계가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녀는 늙으면 기녀의 假母가 되어 舊業을 계속하든지, 다른 사람의 처첩이 되어 從良을 하든지 아니면 승려나 도사가 되는 세 가지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sup>20)</sup> 이미 20세가 넘는 桂英으로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런 그녀 앞에 출세 가능성이 높은 王魁가 출현하자 더욱 반가웠을 것이다. 그녀는 손님들이 오자마자 “술이란 본시 하늘이 내린 멋진 녹봉입니다. 제가 술을 따르게 되면 당신은 하늘의 녹봉을 마시게

19) 李劍國, 같은 책, 160쪽.

20) 유병갑, 〈蔣防《霍小玉傳》悲劇의 多重性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9집, 1997, 513쪽.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다가올 봄에 과거에 급제하실 징조입니다.”(酒乃天之美祿, 使足下待桂英而飲天祿, 乃來春登第之兆)<sup>21)</sup>라며 손님 접대용 말을 건네면서 王魁에게 자신의 욕망을 비춘다. 王魁에게서 출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 桂英은 이 남자를 후원하여 출세를 돕는다면 從良은 물론 관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비천한 신분인 자신을 구제해줄 사람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같이 桂英의 적극적인 접근은 신분적으로 불안한 자신의 장래를 의탁하려는 의도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일행 중 王魁만을 붙잡아 밤을 보내면서 솔깃한 제안을 건넨다.

(桂英이) 다시 王魁에게 말했다. “당신은 홀몸이고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 게으르게 놀고 계시는군요. 당신이 매일 열심히 공부만 하신다면 종이와 붓을 사는 비용과 사시사철의 옷은 제가 당신을 위해 변통해 보지요.” 王魁는 이때부터 연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桂英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해가 지나 조정에서 뛰어난 인재를 구했는데 王魁는 京師로 들어갈 여비를 요구했다. 桂英이 말했다. “제 집 재산은 수십만 냥 아래는 아니니 당신께서 반을 가져가셔서 여비로 쓰세요.” 王魁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여기서 해를 넘겨 살면서 당신에게 얻어먹고 입은 신세를 진 것이 정말 고마운데, 오늘 또 금과 비단으로 내가 서울 갈 경비를 대주다니, 내가 귀하게 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귀한 몸이 된다면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오.”(復謂魁曰, “君獨一身, 囊無寸金, 倦遊閭里, 君但日勉學, 至於紙筆之費, 四時之服, 我爲君辦之。”由是魁醺止息於桂之館. 踰年, 有詔求賢, 魁乃求入京之費. 桂曰, “妾家所有, 不下數百千, 君持半爲西遊之用.” 魁乃長吁曰, “我客寓此踰歲, 感君衣食之用, 今又以金帛佐我西行之費, 我不貴則已, 若貴, 誓不負汝.”)<sup>22)</sup>

桂英과 王魁가 나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桂英은 王魁의 과거준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桂英이 상당한 재력을 갖춘 기녀이지만 王魁가 桂英의 집에서 머물면서 쓴 경비와 과거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경비

21) 李劍國, 앞의 책, 160쪽.

22) 李劍國, 같은 책, 160쪽.

모두를 조달하는 것은 기녀로 전락한 뒤 재물을 모은 그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의 장래성을 믿고 그가 출세하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에 대한 순수한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통해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비록 남자의 배신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만 桂英의 경제적 능력은 그들의 애정을 지켜주는 기반임은 부정할 수 없다.

### 3. 婦德의 검비

宋代의 애정 소설 작품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자유연애에 대한 의식이 강렬해지고 여성들의 주동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윤리와 도덕 관념상에서 대부분 여성의 덕행과 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당시 남성 권위의 확대를 의미하며, 宋代 理學의 흥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사실상,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기녀들은 허구와 현실의 복합적 산물이면서 사회의 지배 담론 아래에서 형상화된 인물로 문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층과 독자층의 욕망이 투영된 가공된 이미지이다. 편향된 지배 담론 아래에서 소설 속 기녀들은 도덕윤리를 강요받고 절조를 지키며 현모양처가 되려고 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기녀들이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말을 누리거나 원만한 결말이 아닐지라도 세간의 호평과 독자들의 칭송을 받는다. 譚意歌가 바로 현실세계에서 행복한 결말을 누리는 대표적인 예이며 행복한 결말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德妓」<sup>24)</sup>로 추앙되며 세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예가 溫琬이다. 그리고 從良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주지 않은 邢春娘도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기녀 신분에 대해 한탄하자 그

23) 이시찬, 앞의 논문, 45쪽.

24) 소설 첫 머리에 작가는 “도하의 명창 가운데 색으로써 이름난 자는 많으나 덕으로써 이름난 자는 드물다.”(都下名娼以色稱者多矣, 以德稱者甚尠焉)라고 하고 온완의 일생을 기술하였다. 李劍國, 앞의 책, 200쪽.

체서 單符郎이 그녀를 약혼녀로 인정하고 從良시키는 것을 보면 기녀들이 남성들이 바라는 이상적 여인상에 맞으면 행복한 결말을 누리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여성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순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譚意歌는 아녀자의 덕을 표방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脫籍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차 전매 감독자인 張正宇로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그 사람의 風度, 학문 모두 나의 마음에 든다.”(彼風調才學, 皆中吾意)라며 자신의 배우자로 점찍는다. 張正宇 역시 같은 마음인지라 그들은 곧 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2년 후 張正宇가 다른 곳으로 전임을 가게 되어 헤어지게 되는데, 이별을 앞두고 譚意歌는 “당신은 본래 명문가의 자제이고 저는 기녀이니 미천한 자가 고귀한 사람과 짝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혼인이 아닙니다. 하물며 당신 집에는 정실부인이 없고 연로한 부모가 있으니 지금 우리가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子本名家, 我乃娼類, 以賤偶貴, 誠非佳婚。況室無主祭之婦, 堂有垂白之親, 今之分袂, 決無後期)<sup>25)</sup>라며 이미 脫籍을 했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미천한 신분이며 사회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張正宇는 譚意歌와의 이별을 앞두고 “맹세의 말은 일월처럼 밝아 만약 누군가가 맹세를 어기면 신명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오.”(盟誓之言, 皎如日月, 苟或背此, 神明非欺)<sup>26)</sup>라며 언약을 하지만 사회통념상 그들의 사랑이 쉽게 용인되지 못할 것을 알고 孫氏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몇 번의 서신을 통해 譚意歌는 여전히 張正宇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지만 桂英과는 다르게 자신의 처지를 늘 망각하지 않고 온화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25) 李劍國, 앞의 책, 231쪽.

26) 李劍國, 앞의 책, 231쪽.

소망을 전달하였다. 사랑하는 남자의 결혼 소식을 접한 뒤 괴로움과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에게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홀로 농사지으며 아이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는 편지 마지막에 “당신은 어느 곳에서 벼슬을 하나요? 소식을 전해주세요. 다른 의도는 없고 단지 당신의 행적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 마음은 몹시 심란하네요. 제발 자중자애하세요.(得官何地, 因風寄聲. 固無他意, 貴知動止. 飲泣為書, 意緒無極. 千萬自愛)<sup>27)</sup>”라 하면서 끝까지 그를 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처럼 혼자 아이까지 낳아 힘들게 살면서도 아이의 아버지인 張正宇를 겁박하거나 옥죄지 않고 절조를 지키며 곳곳이 생활하려고 했다.

3년 후 부인이 죽자 張正宇는 長沙에서 올라온 관리에게 譚意歌의 근황을 수소문하고 직접 長沙로 가게 되는데 이는 譚意歌가 그동안 보여준 행적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張正宇는 부인이 죽었다고 곧장 譚意歌를 찾아가 재결합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그녀의 근황을 알려준 관리가 譚意歌를 현모양처로 추앙하며 떠받으니 長沙로 내려가 譚意歌에게 재결합을 요구한 것이었다. 譚意歌가 婦德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다면 張正宇는 그녀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그녀는 무조건적인 수락이 아니라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어떠한 명분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긴 이별 후 다시 재회했을 때에는 정식 배우자로서의 명분을 갖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譚意歌의 온화한 성격 일면에 노련하고 성숙한 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이상 신분 차이로 모든 것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譚意歌는 자신의 삶을 매번 주체적으로 살았다. 기회를 엿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맘에 품어왔던 脫籍을 이루어냈고 자유연애를 꿈꾸며 주동적으로 남성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을 갖는 소망을 이루기에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저 기녀 신분

27) 李劍國, 앞의 책, 233쪽.

서 벗어났을 뿐 從良의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桂英처럼 분개하거나 복수를 다짐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婦德을 실천했기에 결국 그와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 그녀가 원하는 진정한 從良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에 비해 桂英은 王魁가 배신할까 늘 두려워했다. 譚意歌와 溫琬은 脫籍을 통해 이미 良人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녀 신분이었다. 현저히 다른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던 그녀는 전에 꾸었던 불길한 꿈이 현실이 될까봐 늘 걱정하고 있었다. 王魁의 서약만으로는 부족하여 신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였고, 배신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맹세를 들어도 못 미더워했다. 자신과의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 王魁를 과거 보러 가게 해야 했지만 이 잠깐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시를 주면서 “당신의 재주와 학식이라면 당연히 무리 중에서 수석을 차지할 것이지만 저는 당신과 헤로하지 못할까봐 걱정일 따름입니다.”(以君才學，當首出群公，但患不得與君偕老)<sup>28</sup>라며 끊임 없이 불안한 정서를 보이고 있다. 불안감에 정비례하듯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를 응징하려고 했다. 桂英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며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말을 듣더니 바로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 한참 후에 시녀에게 말했다. “오늘 王魁가 나와의 맹세를 저버렸으니 반드시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지만 나는 아녀자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에게 복수하겠다.” 마침내 시녀와 함께 해신을 모신 사당으로 가서 신께 말했다. “제가 처음 여기에서 王魁와 함께 맹세를 했으나 그가 지금 은혜를 저버리고 맹세를 어겼는데 신께서는 어찌 모르십니까? 만약 신통함이 있으면 신께서는 桂英과 함께 이 일을 분명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신을 돕겠습니다.” 이에 집으로 돌아가 칼을 들고 목을 그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시녀가 구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聞及此語乃僕地大哭。久之，謂侍兒曰：“今王魁負我盟誓，必殺之而後已。然我婦人，吾

28) 李劍國, 앞의 책, 161쪽.

當以死報之。”遂同侍兒，乃往海神祠中，語其神曰：“我初來與王魁結誓於此，魁今辜恩負約，神豈不知？既有靈通，神當與英決斷此事，吾即自殺以助神。”乃歸家，取一剃刀，將喉一揮，就死於地，侍兒救之不及。)29)

그녀의 사랑에는 기녀라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배신을 계기로 이 사랑은 집착과 증오로 변질되어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王魁가 용서를 빌어도 그녀는 증오 가득 찬 말을 쏟아낸다.

王魁는 자신이 도리에 맞지 않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내 지금 그대를 위해 스님을 불러 불경을 외워 구제하고 지전을 많이 태워 드리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桂英이 말했다. “나는 너의 목숨을 원할 뿐이다. 불경이며 紙錢이 다 무슨 소용이냐!”(魁知理屈，乃嘆之曰：“吾之罪也！我今為汝請僧，課經薦拔，多化紙錢，捨我可乎？” 桂曰：“我只要汝命，何用佛書紙錢!”)30)

桂英과 譚意歌가 적극적으로 남성을 선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했더라도 행복한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공인이 필요했다. 이 두 기녀는 미모와 문학적 재주를 갖추고 경제적인 후원을 통한 헌신적인 내조를 하였다. 심지어 桂英은 과거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등 남성의 출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했지만 현숙함으로 포장된 여성의 내면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 차이는 바로 남성이 혹은 그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가 기녀에게 바라는 「婦德」이 桂英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기녀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지만, 가족제도 밖에서 가부장제 권력의 행사자인 남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여성으로, 역시 남성 중심적 사회제도의 산물이다.31) 그렇기에 기녀들이 이 가족제

29) 李劍國, 앞의 책, 162쪽.

30) 李劍國, 앞의 책, 163쪽.

31) 김진균, <기녀의 내면 풍경을 엿보는 남성 문인의 시선>, 《한국고전연구》

도에 편입되어 온전한 가정을 꾸리려면 남성들이 바라는 욕망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능력과 婦德을 겸비한 이상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 기반에서 기녀의 내조가 남성 출세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분상승이나 남성에게 의탁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높은 위상을 부여하지 않고 이에 비해 신분 상승의 의도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sup>32)</sup> 결국 이러한 까닭으로 “조용하며 절개를 지키고, 행동을 바르게 처신하며 부끄러움을 알아 움직임과 멈춤에 법도가 있는”(淸閑貞節, 守節整齊, 行己有恥, 動靜有法)<sup>33)</sup> 婦德의 표본인 譚意歌가 제도권에 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실 부인이 되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며 이와 반대인 桂英은 희생적인 내조를 했음에도 婦德을 실천하지 못해 사회적 공인화 과정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남성 지식인 계층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제도권의 관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IV.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宋代 傳奇小說 속 기녀들이 從良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낸 능력과 면모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건이 성공적인 결말을 이끄는지 살펴보았다. 기녀들은 문학적 재능, 경제적 능력, 그리고 婦德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경우 從良을 달성하였는데 그중에서도 婦德은 단순한 脫籍이 아닌 평범한 가정을 바라는 기녀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녀의 욕망은 脫籍하여 정

33집, 2016, 68쪽.

32) 김종근, <고소설 속 기녀의 정조 의식과 가정 내 안주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2005, 140쪽.

33) 東漢 班昭 <女誡>: “淸閑貞節, 守節整齊, 行己有恥, 動靜有法, 是謂婦德.”

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용모는 물론 경제적 능력, 문학적 소양까지도 갖춰야 하지만 제도권의 가족제도에 편입되어 신분 상승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윤리 규범을 따르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宋代 傳奇小說에서는 기녀를 단순히 남성의 노리갯감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그녀들을 자유연애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통해 애정과 신분 회복 욕망을 성취하려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주체적 태도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질곡된 운명아래 그녀들의 억압된 욕망은 고통 받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설 기저에 깔린 남성 중심적 욕망과 그 욕망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녀의 사회 공인화 과정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기녀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성취와 신분 회복은 그 자체가 사회 제도나 관습의 영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소설에서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맞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창출하고 있고 그 작품 속에서 기녀들은 신분을 자각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사회적 공인 과정을 통과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宋代 傳奇小說에서는 자신들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녀들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도 있지만 그녀들이 현신한 것에 대해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며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원망하지 않는 「婦德」까지 겸비해야 신분 상승이라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권웅상,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중국 고대 기녀: 당·송·원 기녀의 문학 예술적 역할에 관하여》, 소명출판, 2014.

-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제53집, 2009.
- 권응상, 〈온완(溫琬)의 삶과 문학예술〉, 《중국어문학》 제55집, 2010.
- 권응상, 〈온완 시의 내용과 특징〉, 《중국어문학》 제56집, 2010.
- 권호중·박정숙, 〈《靑樓韻語》를 통해 본 妓女의 接客心理 考察〉, 《중국어문학논집》 제93호, 2015.
- 김종균, 〈고소설 속 기녀의 정조의식과 가정 내 안주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2005.
- 김진균, 〈기녀의 내면 풍경을 엿보는 남성 문인의 시선〉, 《한국고전연구》 33집, 2016.
- 맹원로(김민호 역), 《동경몽화록》, 소명출판, 2010.
- 왕서노(신현규 편역), 《중국장기사》, 어문학사, 2012.
- 유병갑, 〈蔣防《霍小玉傳》 悲劇의 多重性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9집, 1997.
- 이시찬, 〈王魁고사를 통해 본 송대 사회상 연구〉, 《중국학연구》 68집, 2014.
- 樊小青, 《宋代靑樓題材小說研究》, 陝西理工學院碩士學位論文, 2014.
- 束忱, 《宋傳奇小說選》, 三民書局, 2010.
- 袁閻琨、薛洪勣, 《唐宋傳奇總集》, 河南人民出版社, 2002.
- 李劍國, 《宋代志怪傳奇彙錄》, 南開大學出版社, 2000.
- 李劍國, 《宋代傳奇集》, 中華書局, 2001.

### < Abstract >

This study aimed at classifying the aspects about the way the women who were in the subjugated social position of Ginyeo, even though they were born from the class of Yangmin (normal citizens), escape from

their status and try to recover their social position in Roman novels during the Song Dynasty. In addition, it analyzed the abilities and aspects of those women which we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being free from the subjugated social position so as to examine what requirements lead to a successful ending. The summarizat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work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Gamdangyusa> and <Dameuigagi> demonstrate the type that a woman who belonged to the social group of Ginyeo succeeds in becoming Yang Min (normal citizens) and pursues free love, <Wanggoejeon> is the type of revenging the man who betrayed a woman called Ginyeo when she failed in being free from the subjugated social status; and <Danburang> is the type that succeeds in being free from the subjugated social status with the help of a man who is expected to marry. The things that are required for being free from the subjugated social status of these women include literary talent, economic ability, and mor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the virtue (德) of women. There are occasional cases that these requirements would help for Ginyeo to be free from their subjugated social position. In particular, it is estimated that the virtue of women plays a key role in attaining the liberation from the subjugated social position more than any other requirement.

Key Words : 송대전기소설(Romance Novels of the Song Dynasty), 기녀 (Ginyeo), 종량(Liberation from the subjugated social position), 유형(type), 요건(requirement)

